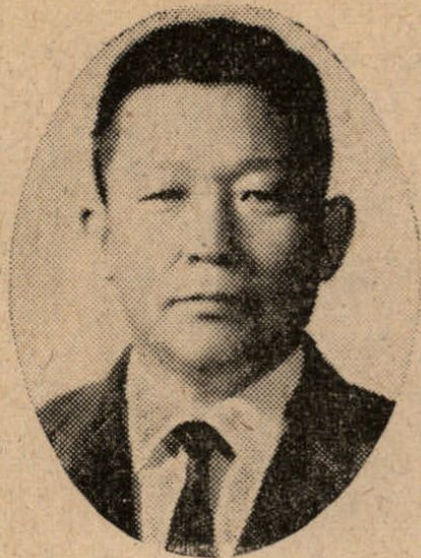




사랑의 터전

고 교감 김 덕 용

“仁聖學校라고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어서 찾기에 애먹을 것으로 알았는데, 저기 教會의 높은 十字架를 찾아 가라는 말대로 찾아 왔더니 쉬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1月 5日 道內 여러 先生님들을 모시고 가졌던 國語科 研究發表會에 參席했던 安城 某學校 教師의 말씀이었습니다. 運動場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仁聖의 校門을 들어서자 어느 아담하고 整理된 그러면서도 前부터 자주 다니던 親舊 집을 찾아온 듯 싶은 親近感을 느끼게 하는 雰圍氣 속에 自身을 잊고 있었다는 것이 그 다음의 말이었고 玄關의 이마에 새겨 넣은 信仰·自由·奉公이란 校訓과 복도에 걸려있는 額子나 花盆들이 요란스럽지 않게 꾸며져 있는 것이 印象的이었다고 했습니다. 仁聖學校는 外貌와 內實이 모두 어쩔 수 없는 女學校고 基督教 教育의 냄새가 풍기는 學校라고 連發하는 칭찬을

듣고 나니 싫지는 않았습니다. 過讚은 기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仁聖人이면 學生이든 教師이든간에 그 누구에게나 예수의 이름이 달라붙어 다니기 마련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슬그머니 뒷골목이나 그늘진 곳에 콩무니를 빼어도 如前히 그 이름은 密着되어 되살아나게 됩니다. 예수가 處刑되기 前날 밤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들은 生生하게 聯想할 수 있습니다. 小子의 한마디 말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程度로 卑劣했던 그날 밤의 베드로는 남이 아니고 바로 우리 自身들의 自畫像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仁聖人이 되었습니다. 混雜이 가고 高요가 오면 그 말씀이 더욱 귀에 쟁쟁 울리고 밤이 오면 어둠 속의 十字架는 더욱 또렷이 浮上되는 影像일 것입니다.

「仁聖」第14집에 부치는 仁聖과 基督教 教育에 대해서 쓰라는 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와 우리 學校의 基督教 教育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1. 基督敎의 學校敎育의 由來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現代의 敎育의 時代的 區分을 1910年 日本의 韓國 强占까지와 1945年 光復까지, 그리고 現在까지의 세 時代로 區分할 수 있습니다. 1885年 4月 5日 언더우드, 아펜젤라의 두 美國人 牧師가 仁川港에 上陸하고 나서 改新敎의 傳道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生涯 目體가 사람을 가르치고 病者를 고쳐 주는 일의 連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흥내내는 것이 그 시작이요, 그를 본받는 것이 目標이기 때문에 그의 길을 닦아 넓히려는 사람들은 으레히 敎會와 學校와 病院을 꼭 같은 무게를 두고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當時의 狀況에 따라 病院이 1884년에 建立되고 1886年 4월에 세브란스醫學校가, 그리고 그 해 卽 1886年 6월에 우리나라 最初의 現代式 學校인 培材學堂이 開設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4年間 日本의 韓國 强占 때까지 基督教系 學校가 雨後竹筍 모양으로 各 地方에 建立되어서 1910年 現在로 學校數가 709校 (大·中·小學校) 學生數가 16,335名을 헤아렸으며 이 數는 官國立의 60校와 12,732名에 比하면 훨씬 그 數가 많아 우리나라 敎育

의 大宗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日帝의 植民敎育政策下에 갖은 苦難을 當하면서도 도리어 改新敎의 프로테스탄티즘은 愛國 抗日的 精神과 同化하였기 때문에 光復까지는 日本化의 敎育政策과 壓迫 속에서도 民族의 精神敎育의 唯一한 바탕이 되어 왔습니다.

2. 基督教 學校의 敎育 精神

우리나라 現代敎育의 90年史를 通하여 基督教 學校의 設立 精神은 韓國 全體의 精神的 기축이 되어왔습니다. 희생, 봉사의 정신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학교의 敎育이념이었기 때문에 일제 박해 속에 온 겨레는 더욱 明白해 지는 그 바탕에 모였고 뭉쳐 왔던 것입니다. 일제 때의 소위 公立 학교에서 아무리 계획적으로 日本化를 추진했다 하더라도 기독교 학교가 끼치는 정신적 영향으로 一部의 사람만이 日本이 원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기독교 학교의 설립정신이나 敎훈을 보면 표현상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개가 『眞理와 奉仕』라는 말에 귀착됩니다. 『나는 길이요, 眞理요, 생명이라』한 말씀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목숨을 아끼는 자는 잃을 것이요,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라는 말씀들은

그대로 기독교 교육의 이념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깨우쳐 길을 넓히고 남을 크게 하려는 봉사 정신의 바탕은 사랑이고 기쁨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리 속에 喜悅을 즐기고 봉사 속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에게 부조리한 외적 힘의 작용이 가해질 때 필연적으로 그것은 항거의 형태로 구현됩니다. 3·1 민족 운동 시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항거한 것은 이런 이치에서였습니다. 일견 항거와 희생은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순은 목표 소재의 차원 여하에 따라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예속된 집단 그 자체가 생의 목표이나 초집단적인 진리가 생의 목표이나에 따라 행동 표현상 항거나 복종이나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유교적 도덕관과 기독교 윤리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효의 기치하에 자기 생명을 초개와도 같이 버리는 무조건 복종의 전통적 관념과 진리의 역군으로 자처하는 신념에 근원한 부조리에 대한 항거, 이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 전체로 또는 십자가 상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十字架는 우리가 판단해야 할 狀況에 처했을 때 진리에 속하려는 사람에게 뚜렷이

크로즈·엮 되어서 되살아 오는 것입니다.

3. 仁聖과 기독교 교육

인성학교를 찾으려면 송학의 언덕 위에 서 있는 제일교회의 십자탑이 이정표가 됩니다. 인천을 찾아 팔미도 앞바다만 접어들면 정면으로 보이는 그 인상 깊은 십자탑 말입니다. 시골의 느티나무 모양 그 탑의 저녁 그늘이 펼쳐지는 마당에 인성학교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21년 전에 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사소한 일도 십년 단위로 생각하시는 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항상 손가락질하여 가리키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가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하는 그 손가락이 너무 분명해서 그분 자신은 사람들의 눈에 떠질 않습니다. 인성학교의 교사나 학생들은 그래서 설립자는 잘 의식치 않고 그의 손가락질하는 方向만 잘 알고 있습니다. 관용과 사랑이, 협력과 봉사가 모두 기도 속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설립자보다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사장도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八旬이 가까우면서 교회나 학교의 일에는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알기 쉬울 듯 싶습니다. 교회의 일이라면 불원천리로 어느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가시고, 또 어느 곳에서든 이 분을 뵈 수 있습니다.

누 노인의 마치 숨박꼭질 모양으로 서로 상대를 내 세우려고 하는 것은 타고난 사람됨인지 성경에서 얻은 것인지 우리는 알 바 없습니다. 인성의 시작과 지금은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자기들 크게 보이려 하지않는 신조가 이제 몸에 밴 것 같아서 인성인이 되어버리면 잘난 척하는 사람도리어 병신 모양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신입생들은 그런 것이 아주 못마땅하여서 여러가지 형태로 반발을 보이곤 합니다. 2학년이 지나고 3학년이 될 무렵에나 인성의 정신이 배어든 그들의 모습을 뒤로만으로도 어김없이 골라낼 수 있게 됩니다. 졸업식 때 으레히 白슴의 선언을 합니다. 『향기 짙은 샤론의 백합화』 그것이 교장선생님께서 부르시는 졸업생의 이름입니다. 근년에 와서는 사지 선다형의 시험 공해와 진학병으로 인성의 백합 발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송학의 샘물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人口가 팽창하고 경쟁이 격심해서 남을 밟지 않으면 설 수 없는 듯한 社會 속에 뛰어 들어가는 인성의 졸업생이면 더욱 세파의 차가움을 통탄하게 될

것이지만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서 예수를 찾아 만나볼 것입니다. 어쩌면 그 분은 이렇게 말해줄지도 모르지요.

『나도 世上에는 약하단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니! 그러나 조금도 괴롭지는 않았어. 그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는 걸. 내 아들 예수야. 그래, 그래, 그 길로 오라. 그게 나의 길이요, 너의 길이다.』

사실상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로 추방당하도록 살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약하고 무력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아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들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줍니다. 그 약한 예수가 되살아나서 항상 우리와 같이 있는 설립자가 되었고 이사장과 교장으로, 그리고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들 교실에 앉아 계십니다. 인성을 찾는 사람마다 그분의 체취를 느꼈다는 말들을 지난 모임에 다녀간 분들께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름지기 삼켜버린 감사의 눈물이 온 몸을 마비시켜 한참동안을 엎드려 있곤 합니다.